

광주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 대폭 확대

부이사관 2명·서기관 4명 늘려 100명 규모

대외협력·마케팅·미디어·홍보 전문 인력 채용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개막을 2년 앞두고 총인원 100명 규모로 조직위 기구를 확대하고, 국내외 홍보에 나서는 등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7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확대·시행한다. 조직개편으로 현재 1총장 1본부 2부 5팀 35명인 조직을, 1총장 3본부 6부 1담당관 17팀으로 확대한다.

현재보다 부이사관 자리 2곳과 서기관 자리 4곳이 새로 생긴다.

3본부는 기획본부·대회운영본부·경기본부로, 부이사관급이 본부장을 맡을 예정이다.

기획본부에는 기획총무부·마케팅홍보부, 대회운영본부에는 문화행사부·정보통신부, 경기본부에는 경기부·시설운영부를 두고 각 부장은 서기관이 맡는다.

조직위는 기구 확대개편을 통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외협력·마케팅·미디어·홍보에 전문가 중심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와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위한 전문인력도 충원

할 계획이다. 조직개편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쳤으며 이달 안에 직제승인과 집행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시행할 예정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광주대회 개막 1년을 앞둔 내년 7월에는 이보다 80명을 더 늘려 규모를 확대한다”며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직위는 대회 개막 2년을 앞두고 국내외 홍보 활동 및 마케팅 및 후원사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시청사와 2017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강원도 평창 등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옥외광고 및 주요 대회 참가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한 홍보와 국내 후원사 유치를 위한 스폰서십 마케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직위는 또 광주시와 함께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심과 시민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대회인 부다페스트대회에서 인계받은 대회기(旗) 인수 환영행사도 오는 8월 19일 연다.

5·18 민주광장에서 조직위원회 위원과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원, 기관·단체장, 시민·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리젠테이션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대회가 2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내외 홍보 및 후원사 유치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성공대회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립예술단원 학원출강·개인교습 못한다

시의회 조례 개정안 의결

영리행위 원칙적 금지

광주시립예술단 단원의 학원출강이나 개인교습 등을 통한 영리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7일 ‘광주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조례안은 시립예술단 단원의 영리행위로 직무 능률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영리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광주시예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도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직무를 겸직할 때에도 총단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대학원 진학과 외부 출강을 원할 경우

공연과 연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하고 다만 주 2회 초과하는 출강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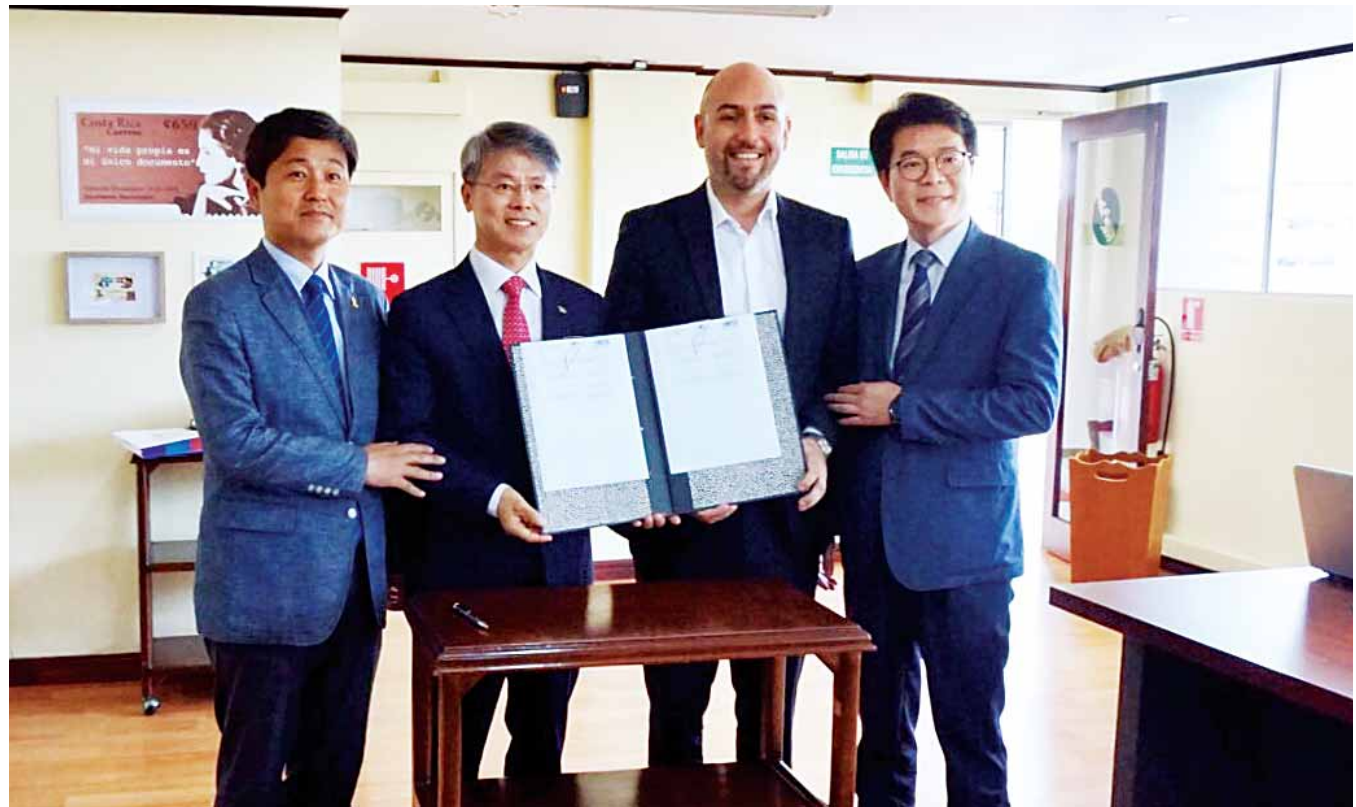
조례안이 분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암암리에 이뤄졌던 예술단 단원의 학원출강이나 개인교습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학원출강이 대거 적발되기도 했으나 기존 조례안에는 영리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처벌하지 못했다.

김용집 의원은 “예술단 단원의 과도한 영리행위는 예술단 전체의 역량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며 “조례를 개정해 문화도시 광주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광주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 발레단, 국극단 모두 8개로 300여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난 6일(현지시간) 코스타리카 대통령궁에서 가진 협정 체결식에는 김영배 성북구청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루이스 에밀리오 쿠엥카 보테이 코스타리카 사회보장노동부차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참석했다(왼쪽부터)

한국-코스타리카 ‘사회적 경제 활성화’ 손잡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코스타리카 정부 협정 체결

교육·지속가능 개발 교류·정책 벤치마킹 포함

민형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광주 광산구청장)이 코스타리카 사회보장노동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Security)와 6일(현지 시간) 상호 협력의향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국과 코스타리카의 연대와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연대와 협력에는 교육·사회적경제·지

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류, 각 기관의 국제회의 지원, 사회적기업 정보 공유, 정책 벤치마킹과 상품 교류 등이 포함됐다.

코스타리카공화국 대통령궁에서 가진 이날 협정 체결식에는 민형배 구청장, 루이스 에밀리오 쿠엥카 보테이 코스타리카 사회보장노동부차관, 송경용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공동의장, 김영배 서

울 성북구청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참석했다.

민형배는 코스타리카 방문은 지난해 방한한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라베라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

코스타리카는 총 생산의 1/4을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세계적인 사회적경제 ‘우등생’이자 지구촌 행복지수 1위를 자랑하는 영세중립국이다. 지난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나라이기도 하다.

지난 3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코스타리카를 방문한 민형배는 루이스 기예르모

호텔 매각 소개 수수료 부담지급

전남개발공사, 직원 4명 징계

전남개발공사가 자산 매각과정에서 소속 직원 부인인 공인중개사에게 소개수수료를 지급한 것과 관련, 해당 직원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개발공사는 감사를 통해 직원 A씨를 중징계하고 다른 관련자 3명을 경징계, 2명은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징계 수위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개발공사는 지난해 10월 해남 땅골 호텔을 감정가의 절반인 33억3300만원에 매각하기로 수의계약을 했다.

A씨의 부인은 이 과정에서 3000만원가량 소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공사는 뒤늦게 자체 감사에 들어가 수수료 지급이 부적절했다고 판단, 수수료를 회수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방침을 정했다. 개발공사는 최근 몇 년간 이뤄진 33건의 수수료 지급 경위도 파악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가뭄 해갈 특별교부세 25억 추가 지원

전남도는 7일 “이름값 단비가 내렸지만 가뭄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함에 따라 가뭄 우심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민안전처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 25억원을 확보해 추가로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 들어 전남지역 강우량은 6월 현재까지 182mm로 전년(556mm)의 33%에 불과한 실정으로 신안·무안 등 10개 군 136지구 4000여ha에서 물이 부족해 모내기가 지연되고 있다.

모내기한 논 일부에서도 물마름과 시들, 고사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6월 말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모내기가 어렵거나 고사하는 등 2000여ha에

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특별교부세 25억원은 신안·무안 등 가뭄피해가 심한 우심지역 위주로 배분하며, 관정 개발, 하상 굴착, 간이양수장 등 긴급 용수 개발 사업비로 쓰여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7일까지 예비비 100억원,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비 25억원, 저수지 준설사업비 15억8000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원, 특별교부세 25억원 등 모두 168억8000만원을 시·군에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콘텐츠·에너지 관련 30여 기업 대상

오늘 빛가람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

전남도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기업 유치를 위해 MOU 체결 기업, 이전 공공기관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8일 빛가람 전망대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혁신도시 투자협약 기업은 총 150여 곳이다. 이 가운데 콘텐츠 관련 기업은 초청,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정보통신지구에서 IT융합 콘텐츠 기업 입주,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등의 협력업체를 초청해 에너지 지구 입주를 각각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에 초청된 30여 기업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에 소재하고 있어 이 기업들을 유치할 경우 지역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기업들에 혁신도시 조성 현

황, 투자 매력 요소, 클러스터 융치 분야 내용,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알기 쉽게 설명한 후 혁신도시 곳곳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투자자의 혁신도시 이전계획 수립 시 정주 여건까지 고려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강상구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은 “이번 투자유치설명회에 참가한 기업들이 혁신도시에 투자한다면, 2017년 기업 발전의 기회를 잡은 행운의 시기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113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062-364-8800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